

 <div>금융위원회</div>		<div>보도자료</div>			
 <div>금융보안원 FINANCIAL SECURITY INSTITUTE</div>	보도	배포시	배포	2020.7.7.(화)	
책 임 자	금융위 전자금융과장 이 한 진(02-2100-2970)		담 당 자	김 영 진 사무관 (02-2100-2973)	
	금융보안원 경영관리본부장 김 호 술(02-3495-9002)			박 진 석 부장 (02-3495-9100)	

**제 목 :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「정보보호의 날」을 기념하여,
'디지털 금융 활성화에 따른 혁신과 보안의 균형
발전'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였습니다.**

- '20.7.7(화),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보안원이 개최한 「제9회 정보보호의 날(7.8일)」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에 참석
 - 금융산업의 금융보안·정보보호에 기여한 금융회사 정보보호최고책임자(CISO)에게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여
- 또한, 금융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, 『**혁신의 원발과 보안의 오른발이 같은 보폭으로 나간다**』는 균형 발전 전략에 따라
 - 「전자금융거래법」 개정을 비롯해 '**지속가능한 디지털 금융혁신**'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

1 행사 개요

- '20.7.7.(화),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보안원이 개최한 「제9회 정보보호의 날*」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」에 참석

* '09.7월 사이버 공격에 의한 정부기관, 금융회사 등의 대규모 장애사고를 계기로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 공격 예방, 정보보호를 위해 '12년 제정된 법정 기념일

- 이번 세미나는 금융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, 민·관의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
- 디지털금융 혁신과 보안의 현재를 조망하고,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는 균형적 발전 방향을 모색

□ 아울러, 금융보안·정보보호 최전선에 있는 금융회사 유공자에 대한 금융위원장 표창을 하였음

- 금융산업의 금융보안·정보보호에 기여한 정보보호최고책임자(CISO,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)*에게 표창장을 수여

* SC제일은행 김홍선 부행장

<정보보호의 날(7.8일)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 개요 >

- ◇ (일시/장소) 7.7.(화) 08:00 / 포시즌스 호텔 그랜드볼룸(3층)
- ◇ (주최) 금융보안원
- ◇ (참석자) 금융회사·유관기관·핀테크기업 대표자(33명) 및 관계자 등 총 137명
 - (은행권) KB·신한·우리·KEB하나, 산은·기은, SC제일 등 주요 은행장
 - (금투·보험·카드 등) 금융투자회사, 보험회사, 카드회사 등 대표자 및 관계자
 - (협화·유관기관) 은행연합회장, 금융결제원장, 신용정보원장, 금융투자협회장 등
 - (핀테크) 핀테크 산업협회 회장, 레이니스트 등 핀테크 대표자 및 관계자
 - (빅테크) SK텔레콤 부사장, 쿠팡 부사장, 네이버 CISO
- ◇ (행사내용) ① 기조연설 : 디지털 금융활성화에 따른 혁신·보안의 균형발전(금융위원장)
② 금융보안 유공자 표창
③ 주제강연 :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보안, 현재와 미래 (KAIST 김용대 교수)

2 금융위원장 기조 연설 : 혁신 · 보안의 균형 발전 <요약>

가.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노력

□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추세 속에 코로나19 등으로 금융의 비대면화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환경에 살고 있음

- 간편송금·결제 등 크게 증가하는 등 온라인 거래 선호 경향이 뚜렷해지고, 금융회사 등의 재택근무와 화상회의도 점차 확대

□ 그동안 정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, 오픈뱅킹, 데이터 3법 등 금융 혁신 정책을 적극 추진

- 지난 달 말까지 '금융규제 샌드박스'를 통해 총 106건의 혁신 금융서비스를 지정

※ (사례) 금융규제 샌드박스 테스트 중인 혁신금융서비스 (현재 총 106건)

- ▶ 카드나 스마트폰을 소지하지 않아도 안면인식정보로 인증·결제(FacePay)
- ▶ 드라이브스루(Drive Thru) 현금인출 서비스
- ▶ 통신료 납부정보 기반 신용평가 서비스로 사회초년생·주부 등에 대출 승인
- ▶ '금융기술연구소'에 망분리 규제 특례를 부여해 디지털 신기술 연구·개발 지원

- 작년 12월 본격 출범한 '오픈뱅킹'은 현재 경제활동인구 10명중 7명 이상이 사용하면서, 조회·이체 이용건수도 10억건을 돌파
- 나아가, '데이터 경제' 분야에서도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「데이터 3법」이 개정되어 8.5일부터 시행될 예정

나. 디지털 금융의 취약 요인

□ 하지만, 디지털 금융혁신은 금융보안·정보보호 측면에서 새로운 도전과제를 끊임없이 던져 주고 있음

- ❶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를 도용한 부정결제 사고, 대포폰·악성앱 등을 통한 보이스피싱 등 혁신과 편리성의 이면에서 범죄가 발생
- ❷ IT아웃소싱 확대,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등으로 금융이 비금융 부문 리스크에 영향을 받는 제3자 리스크(Third Party Risk)가 심화
- ❸ 클라우드,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신기술을 금융권에서 활용하게 됨에 따라 해킹 등 사이버 위협의 범위도 확대

□ 국민의 재산과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지켜지지 않는다면, 디지털 금융혁신은 사상누각(沙上樓閣)에 불과

다. 혁신·보안의 균형발전 전략

□ 정부는 『혁신의 원발과 보안의 오른발이 같은 보폭으로 나간다』는 균형 전략에 따라 '지속가능한 디지털 금융혁신'을 추진하겠음

- ❶ 혁신과 보안의 균형의 첫 걸음으로 「전자금융거래법」 개정을 추진하겠음(7월 중 「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」 발표)
 - MyPayment, 종합지급결제 사업자 등 편리하고 혁신적인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면서,
 - 금융보안은 대폭 강화하고 한 단계 높은 이용자 보호체계 마련

② 보이스피싱 등 반사회적인 금융사기 범죄로부터 금융시스템과 소비자를 지켜 나가겠음(6.24일, 「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」 발표)

③ 비대면 금융활동의 기반인 인증·신원확인 제도를 개선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인증수단, 신원확인 방식이 활용되는 체계를 마련(3분기 중 「금융분야 인증·신원확인 제도혁신 방안」 마련)

④ 일상적 위기관리를 위해 업무지속계획(BCP: Business Continuity Plan)을 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금융인프라 기관에도 적용

- 망분리 등 보안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은 단계적으로 검토

⑤ Big tech를 통한 혁신은 장려하되,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음

- Big tech가 금융산업에 본격 진출할 것에 대비하여 금융안정, 이용자보호, 규제차익 해소 등 공정경쟁을 위한 기반을 마련

□ 같은 기술적 조건이라면 디지털금융에서 편리성과 안전성은 Trade-off 관계에 있음

○ 혁신을 추구하는 그 어떤 기업도, 이용자의 신뢰 없이는 오랫동안 유지될 수는 없음

○ 금융이용자 측면에서도, 보안을 위한 나의 작은 불편이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음

□ 정부, 금융회사, 핀테크 및 빅테크 기업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디지털 금융혁신과 보안의 균형발전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할 때임

※ 별첨 : 은성수 금융위원장 기조연설문(혁신·보안의 균형발전)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출처표시	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	금융위원회 대변인 prfsc@korea.kr	 질병관리본부 콜센터	 해외감염병 NOW
--	---	--	---	---	--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